

더램프의 희망등불

스리랑카의 아픔

아래의 내용은 최근 스리랑카 관련 뉴스 보도 내용입니다.

스리랑카, 대외부채 63조원 일시 디폴트 선언



(콜롬보 AP=연합뉴스) 최악의 경제난으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서 11일(현지시간)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 퇴진 촉구 시위에 참가한 한 남성이 대통령 관저 입구를 가로막은 바리케이드 위에 서서 국기를 흔들고 있다.[사진=AP 연합뉴스]

실패한 '유기농 국가'..스리랑카의 눈물



사진=로이터연합뉴스 / 세계일보 4월15일

- 한달 전 1달러에 202루피였는데 현재 322루피가 되었습니다.
- 석유부족으로 교통이 마비상태가 되었습니다. (기름값도 한 달새 2배이상 폭등)
- “기름도 우유도 전기도 없어요”...스리랑카는 지금
(분유 값 : 한 달 전 400루피에서 1,990루피로)

코로나 이전 까지만 해도 스리랑카는 저소득국가를 탈피해서 중저소득국가로 도약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다시 저소득국가로 추락했습니다. 그것도 견디지 못하고 디폴트를 선언하고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국가부도를 맞았습니다. 이런 충격이 가장 큰 계층은 농촌과 빈곤계층입니다. 그 중에서도 작년 스리랑카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유기농국가를 선언했다가 실패하여 그 피해가 그대로 농민에게 주어졌습니다. 옆친데 옆친격으로 국가부도로 쌀과 식료품 값이 폭등하고, 그나마 구하지 못해

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기는 중단되고, 휘발유는 배급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 휘발류파동은 그동안 더램프가 지원한 식수시설운영에 타격을 주어 한 곳은 식수 생산에 차질을 빚는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이 사진은 2020년 코로나로 봉쇄되면서 식량이 부족하여 긴급지원한 식량키트입니다.

다시 긴급지원 식량키트 지원해야 합니다.

○ 긴급 식량지원 키트는 스리랑카 5인 가정의 영양과 현지의 식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구성이 됩니다. 1회 제공 식량키트 구성은 쌀 10kg, 밀가루 5kg, 달커리 2kg, 설탕 1kg, 차 500g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긴급 식량지원키트는 5인 기준 한 가정이 한 달 간 식사가 가능할 분량입니다.

○ 물라라이티브군 물라이왈라이웨스트면(mullaiwalaiwest GN) 약 500세대입니다. 긴급식량지원키트가 긴급히 필요한 곳은 도시 주변지역이 아닙니다. 도움의 손길이 쉽지 않은 소외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콜롬보에서 300키로 떨어진 오지입니다. 더램프가 2017년-2019년 수질이 안 좋아 암반수를 개발하여 정수시설을 지원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당시 수인성질병과 신부전증으로 사망률이 높아져 어려움을 겪던 지역입니다. 2020년 코로나 초기 1차 긴급식량지원 키트를 지원했습니다.

○ 이번 스리랑카 국가 부도의 충격이 가장 심각한 지역입니다. 이들을 도와주세요.



한 구좌
20,000원이면

5식구 한 가정,
한 달 먹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긴급식량지원키트는
물라라이티브 농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후원구좌 : 국민은행
358801-04-143445 (사)더램프
전화문의 : 070-8803-4587 (안태주)



더램프 후원 QR코드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후원 CMS로
연결됩니다.